

신라왕경의 경관형식과 공간 범역의 해석

- 경주시 용강동 원지 발굴을 중심으로 -

조세환

경주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 환경조경학 전공

An Interpretation on Landscape Forms and Spatial Scope of the Capital City of Silla Dynasty - Some Clues From Excavation of Yonggang-Dong Pond Site of Gyongju-

Cho, Se-Hwan

Faculty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System, Gyongj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spatial scope and landscape structure of the capital city of Shilla Dynasty. We have tried to analyze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e location and landscape form of the Yonggang-Dong pond site which was assumed a part of a king's palace, and had the important implicitness in delineating the spatial scope of capital city of Shilla Dynasty.

The research took the theory of landscape cognition as a tool, and processed with the book reviews related simultaneously.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1) It has been almost conformed that the Yonggang-Dong Pond Site was a part of the North Palace of Shilla Dynasty, and it took the form of fully enclosed by the forest, such as the names of Imjungsu and Gosungsu, and so on. This fact has led to the special landscape form of 'Forest with Palace' that is an similar pattern of Forest with Tumulus, Forest having Well, Forest having Mountain. Each of them is symbolizing the place of holiness in the Shilla Dynasty.

2) The Yonggang-Dong pond site and its surrounding forests made them together be the north border of the Capital City of Shilla Dynasty. This fact made it possible to consider the form of landscape of the Najung Forest with Posugjung Pavilion as the same one which was on the southern border of the city.

3) The above mentioned facts lead to clues that the border of the capital city of Shilla Dynasty does mean that it was not the mere functional one, but symbolic one.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patial scope of the capital city of Shilla Dynasty should include not only the area of block system, but also the surrounding natural area of mountains, forests, and so on, including the artificial elements of palace and

pavilion.

4) This type of borders with the natural elements show basically the different type and function. We could find out some examples from China's and Japan under the same block systems and in the same era. It should be more identifiable in the form and the meaning of landscape of the capital city of Silla Dynasty in ancient Korea.

Key Words : Gyongju City, Yonggang-Dong Ancient Pond Site, Spatial Scope of Capital City of Silla Dynasty, Matter, Form and Structure of Landscape.

I. 서론

신라 왕경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왕경의 공간범위와 규모, 방제의 크기와 구성, 공간구조의 특성, 주작대로의 위치와 규모, 도시조성방식 등 물적 환경을 중심(김경대, 1997 : 45-60)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물적 환경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특히, 신라왕경의 공간적 범역 설정에 있어서는,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주로 신라왕경의 방제(坊制)가 미치는 곳까지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본 연구자가 발표한 신라 토속 신앙에 근거한 신라왕경의 도시 상징성 연구(조세환, 1999 : 65-72)에서 신라왕경을 둘러싸고 있는 선도산, 남산, 명활산, 소금강산, 독산 등의 각 종 산과 산성, 왕경의 중심부에 있는 고분군, 계림, 나정 숲 등의 각종 숲, 우물 등의 자연 및 인공물이 지니는 장소성과 경관형식 그리고 그들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라 왕경의 공간적 범역은 단순한 물리적 형태로서의 방리(坊里)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 상징체계로서의 특정의 의미를 지니는 산, 숲 등의 주변 자연물을 포함하는 공간적 외연까지를 왕경의 공간적 범역으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개연성을 남겼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라왕경의 공간적 범역을 해석할 경우, 신라왕경의 물리적 범역으로서 동서, 남향으로는 각각 왕들의 하강 통로적 의미 또는 상징성(조세환, 1998a)을 지니는 명활산과 남산, 선도산, 남산 등의 산이 실제로 방리 지역에 인접하여 이들

을 공간적으로 한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그 외연적 범역을 논함에 있어 비교적 어려움이 없겠으나, 왕경의 북쪽 방향으로는 구체적인 방리제 적용의 범역 설정조차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있어서도 북천을 경계로 황성공원 안에 현존하는 25m 높이의 독산(獨山)과 고성수(高城藪) 외에 임정수(林井藪) 등의 숲이 있었다는 기록 외에는 뚜렷한 유적이거나 자료가 없어 공간적 범역 설정에 어려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8년 9월 31일부터 1999년 2월 16일 까지 발굴 조사된 경주시 용강동¹⁾ 원지(園池)(영남매장문화연구원, 1998)는 첫째로, 그 자체로서 구조나 기능 등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둘째로, 지금까지 발굴되는 유적 중 왕경 최북단에 위치한다는 입지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신라왕경의 북쪽의 공간적 범역과 경관형식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후자의 측면에서 용강동 원지의 발굴 성과를 근거로 용강동 원지의 구조와 위상 또 그 장소성 분석을 통해 신라왕경의 공간적 범역을 규정할 수 있는 왕경 북쪽 부분의 경계과 그것이 갖는 경관형식과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기 연구된 성과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신라왕경의 경관구조와 공간적 범역을 해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되 용강동 원지의 구조와 방제(坊制)에 대해서는 발굴보고서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상징적 공간 범역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입지적, 장소적 특성 등 경관의 형식

과 의미 해석에 대한 내용은 경관인식론의 연구를 틀로서 사용하였다.

II. 용강동 원지의 입지와 구조

1. 용강동 원지의 입지

용강동 원지는 경주시 용강동 1181번지 일대로서 경주시가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면적은 약 2,600여 평에 이르고 있다. 이 원지 주변에는 현재 주거지로서 단독 및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가깝게는 논으로, 멀게는 대부분 과수원 경작지였다.

현재, 이 원지의 입지적 특성을 보면 동쪽으로 약 400m 떨어져서 소금강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멀리 서천과 서천변 유림 숲이 있다. 또한, 서남쪽으로는 황성공원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며 황성공원 안에는 독산(獨山)과 황성숲(옛 명칭: 高城藪)가 존재하고 있다.

2. 용강동 원지의 구조

용강동 원지의 발굴결과(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8) 이 원지에는 1개의 완전한 섬과 또 다른 섬의 일부분, 석축호안, 섬과 호안을 잇는 다리시설, 호안에 인접한 전각 건물지, 도로유구, 기타 기와 등 각종 유물이 나타났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1) 호안석축렬

이 원지의 호안석축렬은 유적의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동서 길이 38m 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남북 길이는 66m이나, 북쪽으로 조사구역 밖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 형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쪽의 호안석축렬에는 건물지 및 교각시설과 접하여 있다.

2) 인공섬

호안 중앙에 위치하는 인공섬은 남북 27m, 동서, 20m, 기단부 잔존 높이 50cm 내외의 장방형에 가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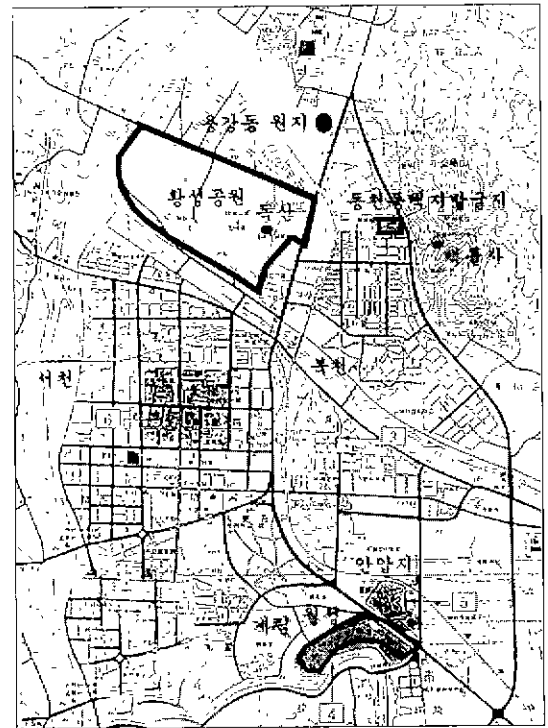


그림 1. 용강동 원지의 위치도

다. 100cm 내외의 가공한 장대 석 일부와 자연석의 뾰족한 부분 그대로를 이용해서 자연적인 섬을 표현하였다. 서쪽 기단부 석렬 중앙은 반도모양으로 들어가고 자연석과 10cm 내외의 천석이 비스듬히 덮여져 있어 서쪽 호안석렬을 잇는 교각시설로 추정된다.

3) 건물지

동쪽 호안석축렬의 동편에 위치하며 정면 3칸, 측면 1칸의 적심건물지이다. 건물지의 중앙에서 인공섬과 연결하는 교각시설과 접하여 있는 점으로 보아 누각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다리시설

인공섬의 동편에 잘 갖추어진 방형 축대와 건물지 사이를 왕래하는 다리시설의 흔적인 적심이 연못바닥에서 확인되며, 이는 건물지의 가운데 부분과 연결된다. 교각시설과 석조구조물 등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교일 가능성이 높다. 인공섬 동편의 방형축대와 건물사이의 연못 바닥에는 바닥에서 50cm 정도 두께로 외적이 되어 있고, 내부에는 숫막새, 귀면화, 암막

새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와적된 분포를 볼 때 다리시설 상부에는 건축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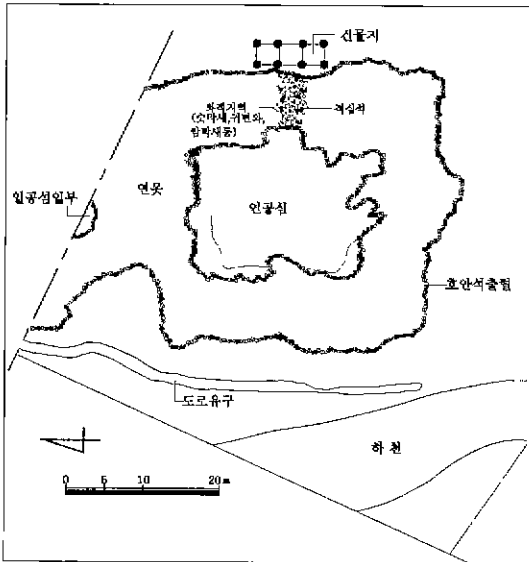


그림 2. 용강동 원지 발굴 평면

5) 유물

유물은 인공섬의 동편 방형 축대와 건물지, 다리시설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와당이 주류를 이룬다. 출토된 와당은숫막새가 130여점, 귀면화 5점, 암막새편, 평기와 등이 있다.

III. 용강동 원지(園池)의 경관형식과 장소성

1. 용강동 원지의 경관형식

용강동 원지는 기본적으로 숲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입지적 특성을 지닌다. 즉, 용강동 원지는 독산으로부터 북동방향으로 약 830m, 방리 유적의 최북부를 보여주고 있는 동천동 택지 발굴지로부터는 북서 방향으로 약 800m 떨어진 곳에 입지하고 있다.

고대의 토속신앙 관점에서 볼 때, 산(Yi-Fu Tuan, 1974: 70)과 숲(조세환, 1998)은 하늘과 땅을 잇는 매체로서 왕의 탄생신화 또는 제사 장소, 사냥터 등과

관련된 매우 신성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용강동 원지는 바로 이와 같은 신성물로서 독산, 또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고성수와 소금강산과 독산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임정수(林井蕪)³⁾, 유립수 등에 의해 동, 서, 남향으로 둘러싸여 있고,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숲들은 왕의 사냥터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신라에서의 '숲+능', '숲+우물', '산+숲'의 경관형식(조세환, 1999)과 더불어 의미 있는 장소로서의 '숲+원지'라는 경관형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용강동 원지의 장소성

용강동 원지는 앞에서 논의된 경관형식에 비추어 볼 때, 경관인식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용강동 원지는 원지의 성격과 규모, 출토되는 유물 중 귀면화 및 연화문숫막새 등으로 볼 때, 이 지역에 통일신라시대의 별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영남매장문화연구원, 1998) 이 원지는 왕과 관련 있는 장소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후술하겠지만, 용강동 원지는 왕경의 최 북쪽에 위치하는 방(坊) 지역 너머에 입지하고, 반월성 왕궁에서 북천을 건너 왕이 사냥 가는 통로에 있는 고성수(현재의 황성숲)를 지나서 도달할 수 있는 장소라는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왕의 사냥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숲속에 있거나, 적어도 숲과 접하여 이 원지가 있다는 정황은 이곳이 왕의 휴양 터로서의 기능성과 더불어 숲이 갖는 신성의 의미와 함께 신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용강동 원지와 북궁과의 관련성

신라 왕경 연구에 있어 미스터리로 알려져 있는 북궁의 존재는 신라왕경의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지금까지 윤무병, 김병모, 재동충 등의 교수는 북궁이 정궁으로서 월성과 주작대로를 연결하는 선이 북천에 만나는 지점 어딘가에 위치(특히, 전량지 부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田中俊明 과 문경현 등은 북궁은 정궁이 아닌 이궁 또는 별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문경현은 북궁을 해

성대왕(惠成大王) 원당(願堂)이라는 북궁해인수(北宮海印葦)설을 제시하고 북궁은 '숲의 바다로 이루어진 별궁'으로 주장하였다(문경현, 1995).

문경현의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용강동 원지의 발굴 유물 및 유구, 그 입지성과 장소성 해석 등에서 볼 때 본 연구와 상당한 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용강동 원지는 신라왕경의 방리 북쪽 한계를 넘어 위치하고, 숲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원지시설이 있고, 왕의 사냥 및 휴식을 위한 장소라면, 이것은 바로 별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신라왕경의 공간범역 및 경관 구조 해석

1. 신라왕경 공간 범역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신라왕경의 공간범역에 대한 연구의 효시는 후지시마(藤島核治郎, 1969) 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신라왕경북원도를 제시하면서 신라왕경의 공간범역을 동으로는 명활산, 서로는 서천, 남으로는 남산을 중심으로의 나정숲, 동의 망덕사지까지를, 북쪽으로 북천까지를 경계로 설정하면서도 북쪽으로는 경계는 불분명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윤무병 교수(김경대, 1997 : 47)는 왕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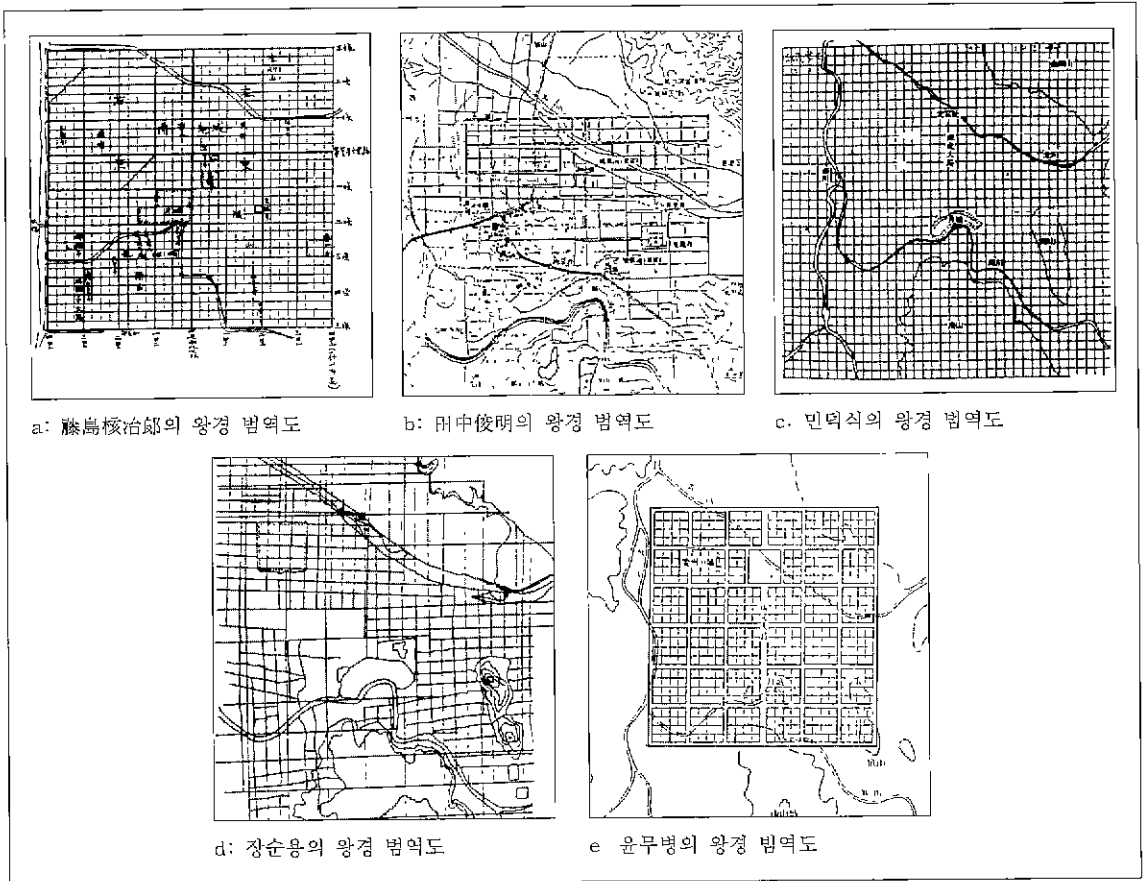


그림 3. 기 연구자들의 신라왕경 범역도

출처: 김경대, 1997: 45-60.

공간범역을 서측으로는 서천과 동으로는 낭산이 끝나는 언저리, 남으로는 도당산 범역으로 그리고 북으로는 탈해왕릉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다.

齊藤忠(제등충, 1981 : 45-147) 왕경의 공간적 범역을 동은 낭산, 북과 서는 하천을 경계로 하고 남은 월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반면, 田中俊明(제등중, 1981 : 254-266)은 왕경의 구역의 범위를 북으로는 읍성의 북성벽의 약간 북을 이루는 선, 서는 서천을 경계부로, 남으로는 월성, 동으로는 낭산 경계부를 왕경의 구역으로 보고 있다.

장순용(1976)은 격자구획이 북으로는 백률사남으로는 삼릉 부근까지, 서로는 서천, 동으로는 낭산의 동측부 까지 격자형 기구가 구획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한편, 김병모(1984)는 북으로 황성공원, 서로는 서천, 남으로는 배리, 동남으로는 사천왕사, 망덕사 까지 방리가 뻗어 나갔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왕경의 북측의 경계부를 황성공원까지로 하였다.

이상의 신라왕경의 공간적 범역에 대한 기존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신라왕경의 공간적 범위 설정을 방리가 미치는 범역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북으로는 백률사, 남으로는 삼릉, 동으로는 명활산 북으로는 북천, 서로는 서천을 경계부로 보고 있어 주변 자연물은 단순한 경계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2 신라왕경의 도시경관 형식과 구조

신라왕경의 도시형태적 틀을 이루고 있는 방제(坊制)는 중국의 장안성 및 일본의 평성경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신라 왕경의 경우 첫째, 방형으로 이루어진 도성(都城)으로서의 외곽 성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과, 둘째, 왕성으로서의 반월성도 장안성이나 평성경의 경우와는 다르게 왕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북궁의 위치 등의 점에서 도시경관 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라왕경의 경관형식상의 차이 중 '외곽 도성의 부재'와 '북궁의 위치'와 관련한 문제는 신라왕경 경관구조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동시에 신라왕경의 공간적 범역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라 왕경에 있어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외곽도

성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왕경 주변의 선도산, 낭산, 명활산, 독산 등의 산과 이들 주변의 숲에 대한 인식을 조명해 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신라왕경의 북쪽지역에 고성수 및 임정수 숲으로 둘러싸인 원지가 발굴됨으로써 이러한 숲들이 기능 및 의미적으로 왕과 관련된 신성의 장소임이 논의되었고, 이러한 숲과 원지가 신라왕경의 방제 북쪽 끝 부분의 평지(동으로는 소급강산, 서로는 옥녀봉에 의해 둘러싸인 평지부분)를 위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신라 왕경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도성(都城)에서 나타나는 장방형의 도성(都城) 형식 대신에 산과 숲 등과 같은 자연물에 의해 왕경을 위요하는 경관형식(조세환, 1999)에 더하여 숲+이궁의 형태도 왕경을 위요하는 경관형식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쪽에서의 임정(林井) 숲+이궁(원지)의 경관 형식은 신라 왕경의 남쪽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나정(蘿井)숲+포석정의 경관형식을 찾을 수 있어, 신라 왕경은 남쪽과 북쪽의 트여진 곳에 숲+원지에 의해 왕경을 둘러싸는 경관형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관 형식이 갖는 의미 해석에 있어서는 신라왕경을 비보(裨補)하려는 의도와 같은 풍수적 해석의 개연성도 있으나, 두 개의 숲(藪)이 공동적으로 신라의 건국신화 및 토속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물(井)(조세환b, 1998)과 어울려 있음으로써 문자 그대로 우물(井)+숲의 형식에 왕과의 관련이 있는 이궁(원지)를 첨가한 형식에서 그 장소성을 '신성의 장소'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동, 서, 남, 북을 신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산과 그 사이, 공간적으로 트여진 곳에 신성의 숲과 이궁(원지) 형식으로 왕경을 위요하고 있는 경관형식과 구조는 동시대(同時代)에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에 의해 조성된 중국의 장안성과 그 영향을 받은 일본 평성경의 장방형 도성 경관 형식과 비교할 때 독특한 경관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신라왕경의 공간적 범역 해석

기존의 신라왕경의 공간 범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특히, 북쪽의 경계에 대해서는 불분명

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경향이 있었으나 발굴 결과 백률사 보다 훨씬 북쪽까지 격자형 방리가 확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b,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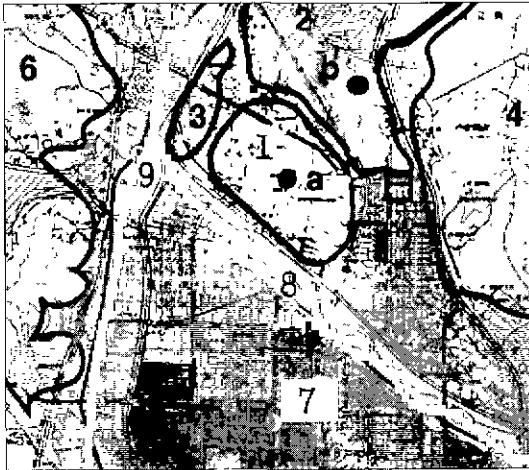


그림 4. 신라왕경 북쪽의 공간범역

- 범례 : 1. 고성수; 2. 임정수, 3. 유림술; 4. 소금강산;
6. 선도산 및 옥녀봉; 7: 방리지역, 8' 북천;
9. 서천; a: 독산; b: 용강원지(북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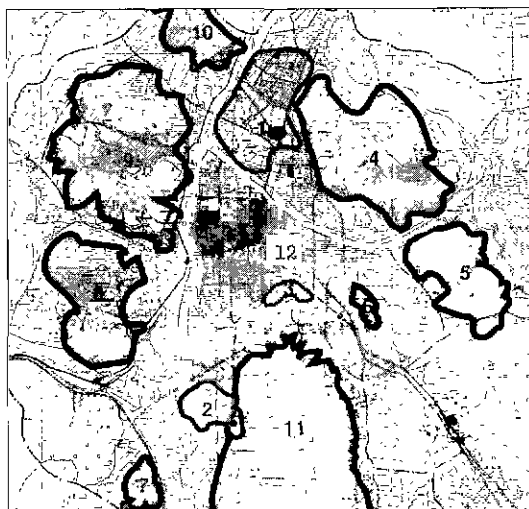


그림 5. 신라왕경의 공간 범역 해석도

- 범례 : 1. 숲+이궁; 2' 나정+포석정, 3. 일성; 4: 소금강산;
5: 명활산, 6. 낭산; 7: 망산; 8 선도산; 9: 옥녀봉,
10: 구미산 자락, 11' 낭산; 12: 방리 지역

또한, 이 발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방리의 북쪽 끝 부분이 동서로 뻗은 담장렬에 의해 마무리되어 있고 그 북쪽에는 어떠한 유구도 나타나지 않았다(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a, 1997)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에 불분명하게 논의되었던 방리의 북쪽 끝의 확인이라는 성과와 함께 그 담의 북쪽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용강동 원지(園池)유적 발굴은 동천동 택지 발굴지보다도 훨씬 북쪽에 입지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러한 의문을 풀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됨과 동시에 신라왕경의 공간 범역 및 도시경관구조 해석에 단서가 되고 있다. 즉, 신라왕경의 북쪽 끝을 확인시켜준 동천동 택지 발굴지는 동쪽에 있는 소금강산에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음으로써 한편으로 방리제의 동쪽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리제(Block System)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격자형 부지와 도로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라는 맥락에서 볼 때, 최 북쪽의 동서로 뻗은 담장렬은 서쪽으로는 독산(獨山)을 둘러싸고 있는 고성수(高城藪 :현재의 황성궁원 지역)에서 끝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소금강산과 고성수 사이에는 임정수(林井藪)가 존재하므로 (조세환, 1999), 신라왕경의 북쪽에서의 격자형의 방리의 끝은 임정수와 경계(境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신라왕경의 북쪽 부분의 공간 범역은 왕의 휴양지인 원지를 포함한 주변 숲 일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그림 4 참조), 이것은, 서의 선도산 및 옥녀봉, 동의 명활산 및 낭산, 남의 남산과 나정(蘿井)숲과 포석정을 포함한 주변 숲 일대와 함께 신라 왕경의 전체적 공간 범역을 해석 가능하게 하고 있다(그림 5 참조).

V. 결론

본 연구는 경주 용강동 원지 발굴을 통해 신라왕경의 공간적 범역으로서의 왕경 북쪽 부분의 경관 형식과 의미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신라왕경의 공간범역과 경관구조를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용강동 원지는 고성수, 임정수 등의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입지하는 장소적 특성에서 볼 때

왕이 사용하는 이궁에 부속된 원지로 규정할 수 있었으며, 이 곳이 바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북궁의 위치라는 주장에 한층 더 접근할 수 있었다.

한편, 지금까지 그 실체가 모호했던 신라왕경의 북쪽 경계는 바로 이 원지를 중심으로 한 동쪽의 임정수 및 서남쪽의 고성수(지금의 황성공원 일대 숲)를 잇는 선으로 밝혀져 기존의 북천, 탈해양릉, 백률사 등으로 주장될 설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밝혀 낸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지금까지 문헌상에는 나타나고 있으나 확실하고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던 임정수의 위치가 동천동 택지개발지구 북쪽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소강산에, 서남쪽으로 고성수에 인접하여 입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라 왕경은 동시대 에 존재하던 중국과 일본의 방형 형태의 도성(都城)형식과는 다르게 신성의 장소란 의미를 지닌 산(山), 숲+산(山), 숲+이궁(離宮)과 같은 경관형식과 상징을 빌어 왕경을 외연(外延)함으로써 그 경관적 정체성이 돋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라 왕경의 공간적 범역은 기존에 주장되고 있는 단순한 방리 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신라왕경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주변 산과 숲, 이궁 등을 포함한 그 외연까지를 포함하는 공간 영역으로 확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신라 왕경 복원의 개념을 단순한 방리의 회복과 같은 왕경의 물리적 구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산과 숲, 이궁(離宮)지역 등과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내용과 형식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독특한 경관과 장소를 형성한다는 이론임. 결국, 특정 경관은 신화, 풍수, 민담, 설화 등의 특정 시대의 관념 체계를 통해 인식하거나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장소성을 밝혀 낼 수 있다는 이론임(정기호, 1986, 1991)

- 주 3. 임정수(林井藏)는 숲 가운데 우물이 있다 하 여 붙여진 숲 이름으로서, 박혁거세가 태어 난 장소로서서 나정숲과 나정(龍井). 그 부 인인 알영부인의 알영숲과 알영정(闕英井)에 서와 같이 우물과 숲은 왕과 관련된 매우 신성한 장소로서 인식되고 있음(조세환, 1998)
- 주 4. 고성수 안에 있는 긴털묘(談髮墓)에 관련된 여 진평왕과 김후직이 관련된 고사가 있음 진평왕이 사냥 가는 통로에 김후직의 묘를 만들어 놓고 왕이 이 지역을 통과 할 때 묘 에서 소리를 내어 왕의 관심을 끌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진평왕이 정사에 전념할 것 을 간하도록 함

인용문헌

1. 김경대(1997) 신라왕경 도시계획 원형탐색과 보존체계설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 김병모(1984) 도시계획, 경주 서울· 일화당
3. 문경현(1995) 신라왕경도 신라왕경연구
4. 민덕식, 신라왕경의 도시설계와 운영에 관한 고찰, pp. 10-62
5. 장순용(1976)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정기호(1986) 자연과 인간의 의식관계로 본 취락경관에서 내적 의미에 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14(2)
7. _____(1991) 경관에 내재된 내용과 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2)
8. 조세환(1999) 신라왕경의 도시상정성 연구 -토속신앙관점에서 큰 경관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7(4). p 65-72.
9. _____a(1998) 경주시가지 고분군의 경관해석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창간호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329.
10. _____b(1998) 첨성대의 경관인식론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26)3: 184
11. 藤島核治郎(1969) 朝鮮建築史論 서울 景仁文化社
12. 齊藤忠(1981) 古代韓國文化와 日本. 원광대출판부 pp 117-157
13. 齊藤忠(1990) 新羅文化論考 吉川弘文館
14. 田中俊明(1990) 韓國古代遺蹟(1卷-新羅編). 中央公論社
15. (사)영남매장문화연구원. 경주용강동 원지(연못)유적 발굴조사, 1998. 12월.
16.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a(1997) 경주시 동천동(7B/L내)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 및 지도위원회자료)
1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b(1997) 경주시 동천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
18. Tuan Yi-Fu(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 and Values. Prentice-Hall New Jersey, p 70

- 주 1. 원지 발굴 현장설명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용강동 이라고 하여 용강동 원지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황성동(皇城洞)에 있음. 왕의 도성(都城)이라는 의미를 지닌 황성이라는 동리명이 언제부터 사용되어 왔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906 경에 제작된 지도에 이 지역이 황성리로 명명되 어 있어 조선조 또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숲과 과수원으로만 덮여 있던 황폐 했던 이 지역이 과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을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주 2. 경관인식론이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설 정되는 경관에는 인간의 개념체계 내에서 표현 하고자 하는 의 미로서의 내용과 그 내용에 걸맞는 형식이 있으며, 이